

순천시 별량면 “논에 순천을 스케치 해볼까?”



순천시 별량면 주민자치회(회장 신명식)는 오는 24일 별량면 봉림플 일원에서 논아트사업 추진을 위한 모내기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모내기 행사는 2021년 마을 계획 실행사업에 선정된 논-아트 사업으로 각종 유색벼(5종)를 활용하여 논에 순천시조인 흑두루미와 농

오는 24일 논아트 모내기 체험행사 개최

오늘까지 참여희망자 모집...참가비 무료

어업인의 삶의 현장을 재연하여 볼 거리를 제공한다.

장수와 소원성취, 행운을 의미하는 흑두루미를 통해 순천시민의 고고한 기품과 선비적 기상을 나타내고, 친환경 농어촌의 모습을 재연하는 경관농업을 통해 생태관광을 유도한다.

올해 논아트 이미지는 별량면 3개 초·중학교 학생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순천시조를 형상화한 캐릭터 '꾸루&꾸미'와 순천만을 끼고 있는 지형적 특징을 살려 어촌의 모습을 담은 '빨배 타는 아낙네' 모습을 밑그림으로 정했다.

별량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2일 못자리 설치 후, 오는 24일 이 도안을 바탕으로 유색모를 심는 모내기 체험행사를 갖는다.

모내기 체험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 시민 누

구나 별량면 주민자치회(061-749-3097)로 2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자들은 개인별 수건과 장화 등을 각자 준비하여야 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명식 주민자치회장은 “논아트 사업은 지역 혁신학교와 도시 소비자들을 연계하여 학생과 도시민에게 모내기 체험의 기회와 함께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촌과 도시간 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식품안전관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고흥군은 지난 14일 제20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2020년도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2개 시·군 위생관리사업 종합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우수함이 입증되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기초위생관리 및 정부주요시책 추진률, 특별관리대상 식품 등 수거 목표 달성률 및 임력률과 함께 코로나 19 예방 우수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지역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출입자명부 등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손씻기 시설 설치,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보성군, 열대저세미나방 발견... 적기방제 중요

보성군은 지난 11일 득량면 비룡리 옥수수 재배포장에서 열대저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되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충 예방·방제 지도에 나섰다.

중국에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열대저세미나방은 주로 옥수수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고 열매에 파고 들어가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상품성 및 수확량 감소에 큰 영향을 준다.

보성군은 기상흐름과 예찰 간격으로 보아 지난 8-9일경 열대저세미나방이 보성 지역으로 날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2주 가량 빠르게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열대저세미나방 방제는 성충이 발견된 후 10-14일경이 적기이며, 보성군의 경우에는 앞에서 태어난 유충이 활동할 시기인 5월 20일 이후가 적정하다.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야행성이므로 가능한 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고 난 후 등록 약제로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성=김명순 기자



여수시, 마을단위 지적도면 ‘호평’

245개 농어촌지역 맞춤형 지적도면·지번별조서 배부

여수시가 농어촌마을 주민 누구나 자기 토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부한 마을단위 맞춤형 지적도면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마을단위 맞춤형 지적도면과 지번, 지목, 면적 등이 표시된 지번별 조서 책자를 관내 245개 마을에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 배부한 맞춤형 지적도면은 사용자 중심의 시각으로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노령인구가 늘어난 농·어촌 현실에 맞춰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적도와 입야도를 동일한 축척으로 편성했다. 특히 마을 주변은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확대 출력하고 고품질 코팅종이를 사용해 다수가 이용해도 잘 찢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적도면을 대형(가로85cm×세로118cm)으로 제작하였고, 달력 형식으로 마을회관 벽면에 걸어 대다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이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언제든지 토지의 위치정보와 지목, 면적 등 세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공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인구문제, ‘광양형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에 답 있다

은퇴자 통합지원 플랫폼 역할 담당 종합지원 서비스 실현

일반적으로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국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광양시 역시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3.3%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철강과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의 양대 축인 광양시는 지역구조 특성상 숙련된 기술자와 고소득 종사자가 많은 도시이다.

근로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가속화로 새로운 일자리와 재능기부 등에 관심이 많은 은퇴자가 매년 약 2,800명씩 발생하며, 은퇴자 인구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발전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광양시는 도농 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5060 은퇴자 지원을 위한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광양형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는 은퇴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시가 안고 있는 인구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무엇보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하나로 묶은 ‘은퇴자 통합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해 은퇴자의 관점에서 지원사항을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종합지원 서비스 실현이 가능해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원스톱 지원을 통해 은퇴자들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을 가속화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은퇴자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정책이 될 것이다.

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일자리, 건강한 먹거리, 보육·돌봄 지원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선호하는 요소들을 모두 갖춘 인프라를 토대로, 누구든지 광양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 기반을 만들고 있다.

광양시는 올해도 재취업·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활동, 평생학습 등 4개 분야 관련 4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은퇴 이후 인생 2막 시작과 ‘활력 있는 노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취업·창업’ 분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은퇴자 공동체 관 광두레사업 참여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등 은퇴자 기술 및 경험과 아이디어를 연계해 20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귀농·귀촌’ 분야는 ▷농어촌 주택 개량 용자지원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시행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 중이며,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 등 특화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옥룡면 왕곡, 옥곡면 목백 등 5개 지구 118세대의 은퇴자 마을 조성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봉강면 부암지구 은퇴자마을(40세대) 조성사업이 내년 분양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이다.

‘사회공헌 활동’ 분야는 ▷광양시 은퇴 재능 봉사단 운영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도림미술관 도슨트(전문 안내인) 양성교육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운영 등 은퇴자 경력을 활용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 분야는 지역주민 사회교육에 역점을 두고, 은퇴자의 특성에 맞도록 ▷인생 2모작을 위한 평생교육 ▷후진학 혁신지원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운영 등 4개의 특화된 서비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광양=심종섭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